

# 이차전지 소재 공장 가동률 ‘뚝뚝’ “정부 차원의 산업 지원정책 절실”

리튬·니켈 등 주요 원료 가격 급락  
글로벌 공급과잉 겹치며 부담 커져  
“기업만으로 끌고 나가기 어려워”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으로 업황 부진이 맞물린 가운데 주요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리튬, 니켈 등 주요 원료 가격이 급락하면서 제품 판가에 반영되는 시차로 인해 ‘역래깅 효과’의 악영향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소재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차전지 소재 공장 가동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동박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64.7%로 2022년 97.5%, 2023년 76.9%에 비해 지속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포스코퓨처엠은 에너지소재부문을 사업을 민감한 영역으로 간주해 올해 공장 가동률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양극재 공장 가동률이 지난 2021년 70%대에서 매년 하락해 지난해 3분기 30% 수준까지 감소한 바 있다. 특히 포스코퓨처엠의 글로벌 양극재 점유율은 중국 기업에 밀려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국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제가 2년간 적용된 상황에

서 2026년까지 견뎌야 하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에코프로비엠과 엘엔에프 또한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가동률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가동률이 하락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엘엔에프는 지난 1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전방산업 수요 감소로 인한 가동률 감소로 손실을 보게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말까지 포항 4캠퍼스에 4732억원을 들여 생산시설을 증설하기로 했으나 2026년까지로 미뤘다.

LG화학의 첨단소재 사업부문의 공장 가동률은 65.9%로 전년 가동률 53.9% 대비 상승률을 보였다.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지난 2월 북미 고객을 중심으로 양극재 출하가 큰 폭으로 확대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생산설비 효율화를 위해 보수적인 생산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LG화학의 양극재 생산능력은 기존 2025년 17만톤, 2026년 20만톤에서 각각 15만톤, 17만톤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면서 이차전지 소재 업계의 재무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포스코퓨처엠의 부채비율은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했던 지난 2021년 60.9%에서 138.9%로 급등했

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신종자본증권 3360억원 규모를 발행하며 회계상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북미 시장을 겨냥해 GM과의 양극재 합작법인을 기반으로 캐나다 퀘벡 지역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적합한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LG화학은 올해 상반기 중 ‘전구체 프리 양극재’를 양산하며 시장 공략에 나설 전략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말 대량 양산을 목표로 고체 전해질 개발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급망 경제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수익성과 기술 투자를 동시에 끌고 가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비용 완화 조치나 제도적 유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기아 더 2025 카니발 외장.

## 안전·편의기능 강화... “연비 고민마세요”



### 카니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로 유지비 걱정 덜어  
모든 트림 ‘차로 유지 보조 2’ 탑재

“이젠 더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최근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경험한 지인의 이야기다. 카니발은 넓은 공간과 다양한 편의기능을 갖추고 있어 출시 후 꾸준히 패밀리카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연비다. 무겁고 넓은 차체로 안전성과 공간성은 확보했지만 그만큼 차량 이동을 위해서는 연료소모가 컸다. 그러나 하이브리드라인업이 출시되면서 이같은 고민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평소 여행을 즐기는 가족에게 ‘안성맞춤’인 차량이다.

최근 국내 대표 대형 RV 카니발의 연식 변경 모델인 더 2025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을 진행했다. 시승은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강원도에 위치한 춘천역 일대를 경유해 돌아오는 약 20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이 차는 이전 모델 대비 안전과 편의 사양을 강화했다. 모든 트림에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을 강화한 ‘차로 유지 보조

(LFA) 2’를 탑재했다. 또 정전식 센서를 활용한 운전대 그립 감지 기능 등을 적용했다. 덕분에 고속 구간에서는 앞차와의 거리와 차로 중앙으로 똑똑하게 달린다. 덕분에 장거리 주행에도 운전자의 피로도는 크지 않았다.

실내 공간성도 매력적이다. 카니발은 길이 5155mm, 높이 1785mm(루프랙 포함)에 달한다. 너비는 1995mm, 휠베이스(앞·뒷바퀴 중심 축간거리)는 3090mm로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시승 차량에는 두 가족(8명)이 탑승했지만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9인승은 4열까지 사용하면 적재공간이 협소해 아쉬움이 있다.

차량의 주행 성능은 부족함이 안정적이다. 1.6T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인 강력하지 않지만 카니발을 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고속도로에서도 시속 110km 이상의 고속 주행에도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와인딩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갔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연비다. 두 가족이 차량에 탑승하고 도심과 고속도로를 주행했지만 연비는 14.7km/L로 뛰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대형 차량임에도 이같은 합리적인 연비를 기록할 수 있는 기술의 진화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양성운 기자 ysw@

## LG엔솔, 글로벌 고객사 파트너십 강화

북미 등 시장변화 선제 대응 나서  
“안정적으로 기업가치 높여 나갈 것”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미 시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5일 기존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면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4년 12월 GM과 ‘각형 배터리 및 핵심 재료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사는 “14년 동안 이어진 굳건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결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각형 배터리는 향후 GM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화함으로써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업계 유일한 ‘3대 품팩터’ 전략 체계를 갖췄다. 미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또 한 번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0월 비전 공유회를 통해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주요 중장기 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하이니켈 중심의 프리미엄 배터리를 넘어 LFP(리튬·인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전경. /LG에너지솔루션

산·철)와 LMFP(리튬·망간·인산·철), 고전압 미드니켈 등 중저가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원통형 46시리즈, 고객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폼팩터 개발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도 내재화된 개발 및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각형 패키징 기술을 비롯해 설계 및 공정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 중이다.

글로벌 생산공장 운영 최적화에도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북미에 단독공장과 합작공장 등 8개의 공장을 운영 및 건설 중이다. 혼다·스텔란티스 합작공장 등 내년 북미에서 가동되는 공장만 총 5곳으로 늘어나며 글로벌 생산 역량이 한층

확대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미국 미시간 랜싱에 위치한 열티엄셀즈 3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인수가 이뤄진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3공장을 주요 고객사에 적기에 셀을 공급할 수 있는 북미 주요 생산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GM과의 협력이 굳건한 상황에서 한 고객사에 생산 역량을 집중하기 보다는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3공장은 대부분 건설된 상태로 즉각 설비 구축이 가능한 상태라 신규 공장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장을 새롭게 증설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절감된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렇게 생산 시설 운영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는 건 글로벌 생산 공장 오퍼레이션 노하우 덕분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 중국, 폴란드, 미국,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생산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열티엄셀즈 2공장과 인도네시아의 현대차 합작공장의 경우 가동할 때 수율 90%를 달성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대응 전략으로 안정적이고 기업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 LG이노텍, 카메라 모듈 투자 확대

경북도-구미시 6000억 투자 협약

LG이노텍이 25일 경상북도 및 구미시와 6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MOU)을 체결하고,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FC-BGA) 양산라인 확대 및 고부가 카메라 모듈 생산 설비 확충에 나선다.

투자는 오는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이번 추가 투자로 기관·광학 설루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LG이노텍은 2022년에도

구미에 1조 4000억원을 투자해 ‘드림팩토리’를 구축하고, FC-BGA 생산 및 카메라 모듈 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에 PC용 FC-BGA 양산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차세대 기관 기술 내재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생산라인도 이원화해 기존 모델은 베트남 공장에서, 신모델 대응용 고부가 제품은 구미 공장에서 생산할 방침이다.

/이혜민 기자 hyem@

## 현대차-센디, AI 운송 플랫폼 구축 맞손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물류 생태계 조성

현대자동차가 국내 친환경 물류 시장 확대를 위해 화물운송 플랫폼 기업과 협력한다.

현대차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대로 사옥에서 센디와 ‘ST1 기반 AI 운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의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과 센디의 AI 기반 운송 최적화 프로그램을 결합해 화물 차주의 매출 안정성과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성운 기자